

# 韓國生藥報

本紙는 新聞倫理綱領 및 實踐要綱을 遵守합니다.

發行人兼 林連學  
編輯人 張玉煥  
印刷人 田根澤  
編輯局長

發行所  
社團 韓國生藥協會  
法人

〈우편번호 130-062〉  
서울시 동대문구 제기동  
1140-55 (大山빌딩 3층)  
☎967-8133, 969-6875  
FAX : 965-0643

(每月 初日發行)

## 지면안내

- 규격화 시행 1년 그후 . . . . . 3면
- 약초주말농업전문 . . . . . 4면
- 시세동향 . . . . . 4면
- 자생약초 서식지 탐사 . . . . . 5면
- 행사 이모저모 . . . . . 5면

# “자생약초 사라져 간다”

## 농촌인구 고령화·수입산 범람으로 채취량 감소 수출해 오던 부령 백출, 90% 수입 의존 현실

자생약초가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전만 해도 자연산 생약의 보고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약초가 자생돼 왔다. 고품질 백출을 비롯 천마, 세신백출, 참출, 오미자, 산약, 길경, 당귀, 근, 죽시호, 원시호 등 다량 채취 수입되어 일본이나 홍콩 대만 등지로 수출까지 해왔다.

그러나 이런 자연산 생약은 갈수록 수량이 급격히 줄고 있을뿐 아니라 채취하는 사람도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다. 생약협회 집계한 바에 따르면 지난 91년 당시 7천3백66톤으로 추정되던 자생약초 채취량이 지난 96년 절반에 가까운 4천3백톤으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년도별 자생약초 채취 현황

년도 구분	'91	'92	'93	'94	'95	'96
재배면적 (ha)	9,463	11,816	14,128	15,317	14,954	13,741
수확면적 (ha)	6,601	8,338	10,768	11,053	11,257	10,668
생산량 (MT)	25,646	31,187	37,393	35,295	41,980	42,769
자생약초 채취생산량 (추정) (MT)	7,366	4,986	5,082	4,798	4,868	4,382

\* 재배산 농림수산부자료 참고, 자생약초 생약협회자료 참고

〈표2〉1984년과 1996년의 수출품목 및 물량의 변화 (단위: 천\$, ( ) 내는 물량: 톤)

년도	구기자	길경	당귀	목단피	백출	복령	산수유	세신	시호	오미자	지황	합계
1984	137 (21)	196 (37)	227 (57)	226 (77)	224 (54)	399 (87)	795 (108)	186 (10)	1,415 (74)	576 (288)	231 (54)	499 (42)
1996	-	11 (1)	68 (72)	181 (13)	37 (4.5)	43 (8.5)	900 (33.5)	800 (38.5)	1077 (34)	-	-	-

이처럼 자생약초 채취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이유는 농촌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채취인력의 감소도 한 원인이지만 시장 개방 이후 수입산 약재의 범람으로 국내산 약재의 가격이 하락, 인건비 상승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초 시세가 이를 따르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약초캐기 나들이 일반인 관심 높아

지난달 28일 경기도 연천 소재 보개산에서 이루어진 제3회 자생약초 서식지 답사 행사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약리에 개최됐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약초에 관심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참가했다.

# 농민자가규격화 허용 촉구

### 제조업소 규격품 독점, 농가 부가가치 상실 우려

## 생약협회, 청와대에 탄원서

생약협회는 탄원서를 통해 농가가 규격화 허용 조항을 폐지하고 제조업소를 통해서만 규격품을 제조 유통토록 한다면 그 동안 생산농민들의 몫이었던 부가가치를 제조업소가 일방적으로 독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생약협회는 또 국내 생약생산기반을 초토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생약협회는 따라서 농가 스스로 규격화제도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국내 생산기반이 조성될 때까지는 국내 생산 약재에 대한 규격화를 유보하고 수입 약재부터 우선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요즘 농촌에서는 재배할만한 약초가 없다고 한숨입니다”

생약재는 우리 후손들의 후손 그 후손들에게까지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원입니다. 당장의 작은 이익을 위해 더 큰 재산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함께 사는 내일을 위해 수입엑스제 사용은 자제되어야 합니다.